손끝으로 읽은 시…아나율들의 낭송회

14일, 광림사 연화원 일요법회서
법산 스님 점자 시집 낭송회 개최
"무관심·제작비 등 어려움 있지만
경전·문학 등 점자 불서 계속 제작"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9월 14일 광림사에서 법산 스님의 시집 〈나는 어디로 가나〉 점자판 및 오디오북 출간을 기념하는 시 낭송회를 개최했다. 박인수 불자가 시를 낭송하고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사진 왼쪽)이 수어로 전달하고 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 / 귀를 막아도 들리는 것 / 보아도 안 보이는 것 / 들어도 알 수 없는 것 / 밤새 걸어도 발은 그대로 / 종일 들어도 아는 것 없네 / 모두가 환상인 것을 / 착상 분별 버리지 못하네."

–법산 스님의 시 '보이는 것' 중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점자를 짚으며 나지막이 낭송하는 시(詩)가 법당을 가득 채운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 광림사 주지)이 매달 한 차례 봉행하는 수어법회가 9월 14일에는 시 낭송회로 진행됐다. 연화원 법사 법산 스님(전 조계종 법계위원장)이 최근 펴낸 시집 〈나는 어디로 가나〉의 점자판과 오디오북 발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20여 년간 연화원의 노력 덕분에 점자 불교 법요집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점자도서 중 불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 일반 도서와 달리 판형이 크고 두꺼워 제작비가 2배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해성 스님은 "흔히 시각장애인에게는 오디오북만 있으면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책은 원하는 때 언제든, 자신만의 속도에 따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매체"라며 "불서뿐만 아니라 문학책에 대한 수요도 높다. 지난해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점자책으로 제작한 데 이어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비용 문제로 선뜻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는 어디로 가나〉는 시집이라 점자 제작과 낭송 녹음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게 해성 스님의 설명이다.

법산 스님은 2011년부터 연화원 장애인 법회에 참석해 법문하고 점자 불서 발간을 후원하는 등 장애인 불자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 왔다. 연화원은 지난 2020년 법산 스님의 첫 시집 〈나는 누구인가〉의 점자책도 출간한 바 있다.

시 낭송회에 앞서 강태봉 한국시각장애인불자회장은 "서점에는 수없이 많은 불서가 있지만, 누가 읽어 주거나 점자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그런데 법산 스님께서 써 주신 좋은 시를 해성 스님께서 점자판으로 만들어 주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날 강태봉 회장이 '낙엽', 김재형 불자가 '나도 할 수 있어요', 김종수 불자가 '보이는 것', 박인수 불자가 '딱새', 이은영 불자가 '청산유수', 조주영 불자가 '나는 어디로 가지', 유정숙 불자가 '제비꽃'을 점자책을 짚거나 암송해 정성껏 낭송했다.

시 낭송 후 법문에 나선 법산 스님은 "설법은 여러분들이 다 하셨다. 여러분의 시력이나 청력은 잠시 멈춰 있지만 인식은 밝게 빛나 시 한 편으로도 다양한 감정과 깨달음을 느낄 수 있다. 감미롭고 감동적인 시 낭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전법을 위해 애쓰는 해성 스님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모여 불법과 마음을 나누는 이 자리가 곧 극락세계"라고 격려했다.

법회 후 점자 시집 출간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고, 법산 스님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태국·호주에 전한 韓사찰음식 맛·철학

문화사업단, 방콕 · 시드니서 사찰음식 강의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 일환
사찰음식 장인 동화 스님 강사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태국과 호주에 한국 사찰음식의 맛과 철학을 전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주태국 한국문화원(원장 이선주)과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원장 윤선민)에서 한국 사찰음식 강의를 성료했다. 전 세계적으로 K-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진행된 이번 강의는 사찰음식 장인 동화 스님이 직접 강연과 시연을 이끌며 현지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강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2025 투어링 케이-아츠(Touring K-Arts)'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투어링 케이-아츠'는 국내 우수한 문화예술단체가 해외 공연, 전시, 강좌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 재외한국문화원이 있는 여러 나라를 순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국가인 태국에서는 9월 5일 방콕 수언두싯대학교(Suan Dusit University) 조리학과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특강이 열렸다. 수언두싯대학교는 1930년대 여성교육을 목표로 태국 최초로 조리학과를 개설한 교육기관이다.

참가자들은 동화 스님이 직접 만든 1년·3년·5년 간장과 80년 씨간장이 들어간 10년 숙성 간장을 비교 시식하며 발효의 깊은 맛을 체험했다. 또한 '버섯들깨수제비'와 '장떡'을 직접 만들어 보며 사찰음식 조리법과 발효 장류 활용법을 배웠다.

9월 6일에는 주태국 한국문화원 강당에서 사전 신청자 70명을 대상으로 '버섯밥'과 '고추소박이' 시연·시식에 15명이 참여한 실습 강의가 이어졌다. 현지 언론도 현장을 취재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국가인 호주에서는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총 4회의 사찰음식 강의가 주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120명이 참가한 강의에는 일반 참가자뿐 아니라 시드니 주재 외교단, 호주의 저명한 TV 셰프 겸 식문화 전문가 린디 밀란(Lyndey Milan), 시드니 모닝 헤럴드 미식 전문 기자 데이빗 매튜(David Matthews) 등 현지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함께해 한국 사찰음식의 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주목했다.

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앞으로도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력해 한국 사찰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문화교류의 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도선사, 사리탑 중수 불사 회향…"대중 화합 계기"

9월 13일, 청담 스님 사리탑 제막
김학규 신도회장 등 5명에 감사패



서울 도선사는 9월 13일 경내에서 '청담 대종사 사리탑 제막식 및 사리탑 주변 정비불사 회향식'을 거행했다.

도선사 사부대중의 염원으로 시작된 청담 대종사 사리탑 중수 불사가 2년 6개월여 만에 원만 회향했다. 도선사는 청담 대종사의 유훈을 이어 강북불교를 대표하는 포교전법도량이자 호국도량으로 불법 홍포에 매진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9월 13일 경내에서 '청담 대종사 사리탑 제막식 및 사리탑 주변 정비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스님과 청담문도회 문장 법화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등운 스님(고운사 주지), 중앙종회 종책모임 정법회 회장 탄원 스님,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차기 주지 도심 스님, 청담문도회 운영위원장 도호 스님,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김학규 도선사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담 대종사 사리탑은 1974년 대종사 입적 3주기를 맞아 건립된 후 50여 년 만에 중수됐다. 오랜 세월 풍화로 석물 노후와 주변 지반 침하가 발생해 안전상의 우려가 커지면서 보수가 불가피했다. 이에 도선사는 2023년 3월부터 문중회의를 거쳐 기존 사리탑을 해체·보수해 새롭게 조성에 나섰고, 올해 5월 31일 사리탑을 재건 후 청담 대종사 사리를 봉안했다. 이어 석축 및 배수시설 등 주변 정비까지 마무리해 이날 불사를 최종 회향했다.

주지 태원 스님은 "14년 전 청담 대종사 40주기 다례에서 석상은 퇴색하고 석물은 침하해 원형이 손상되고 있는 모습을 봤다. 당시 10년 안에 도선사 주지로 와 사리탑을 다시 모시겠다고 서원했다"고 회고하며 "끝도 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오늘의 회향 법석을 마련하게 된 기쁜 마음은 모두 도선사를 사랑하는 문중 대덕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청담 대종사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몸에는 생로병사를, 물질적 세계에는 석주괴공을, 마음에는 생주이멸의 참다운 이치로 참회정진해 발심하고, 마음을 밝히는 데 매진하겠다"며 "이번 불사 공덕이 도선사의 끝없는 발전과 인류의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한 불국토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담문도회 문장 법화 스님은 "오늘 사리탑 성역화 불사 회향을 계기로 대중이 화합해 한마음으로 청담 대종사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주지 태원 스님은 청담 대종사 사리탑 및 주변 정비불사의 회향에 남다른 신심과 열정으로 물심양면 도움을 준 김학규 신도회장, 김장연 강북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 주임, 성윤제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과장, 김다경 ㈜다경 대표,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내영 기자

진흥원, 제22회 대원상 후보자 공모

출가·재가부문 등…9월 30일까지

대원 장경호 거사의 불교 중흥의 기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제정된 대원상 후보자 공모가 시작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제22회 대원상 후보 접수를 시작한다"고 9월 15일 밝혔다.

2003년 제정돼 올해 22회째를 맞는 대원상은 △출가 부문 △재가 부문 △특별 정진상(조계종 소속 해외 유학승 2명)으로 나눠 공모한다.

출가 부문은 사회활동·강연(설법)·콘텐츠 제작·저술 등을 통해 포교활동을 하는 스님이나 스님이 중심의 단체·기관, 재가 부문은 다방면에서 효율적 포교를 전개한 재가자 또는 재가자 중심의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단체 및 기관 응모자는 설립 3년 이상, 회원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젊은 승가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정진상은 해외에서 유학 중이거나 올해 유학 예정인 스님과 해외 명상센터에서 1년 이상 수행 중인 조계종 소속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0만원, 특별상에 1500만원, 장려상에 10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서류 제출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마감은 9월 30일까지다. 02-719-2606

신중일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상

9월 5일 '2025년 서울시민 생명사랑의 날' 기념식서 수상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종봉 스님)이 9월 5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민 생명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상을 수상했다.〈사진〉

이번 기념식은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서울시가 주관하고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주최해 마련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2015년부터 종교계 자살예방사업 '살사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살사프로젝트'는 '살자, 사랑하자'의 줄임말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불교·기독교·원불교·천주교 등 4대 종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종교 기반 자살예방사업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 프로젝트를 비롯해 자살 유가족을 위한 위로법회, 템플스테이, 상담·명상 결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심리적 위기에 놓인 이웃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수상 소감에서 "귀한 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생명사랑과 자살예방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이 함께한 '살사프로젝트' 참여 단체들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앞으로도 명상과 상담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마음건강 증진과 치유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서울노인복지센터, 무료급식 확대 나선다

서울시·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함께
대우건설, 4억 5000만원 후원해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웅 스님)가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9월 16일 센터 3층 TOP 작은공연장에서 서울특별시, 대우건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무료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9월부터 2028년 9월까지 3년간, 무료급식 대기 인원을 해소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는 '무료급식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무료급식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추천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대우건설은 총 4억 5000만원(연간 1억 5000만원) 후원 및 임직원 정기 봉사활동을 병행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서울노인복지센터는 탑골공원 복지정보센터를 통해 무료급식 상담·신청을 주관한다.

해당 사업은 △영양관리가 필요한 노인 1인가구 증가 △탑골공원 민간급식 대기 줄 문제 등 사회적 이슈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영역 확대 필요성에 대응해 마련됐다.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영양불균형 해소 △급식 대기 인원 분산을 통한 안전한 급식 환경 마련 △식사를 매개로 한 사회적 교류 확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구축 등 어르신 복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02-6220-8668

임은호 기자

BTS RM도 찾은 직지사서 '짝꿍' 만나 보자

10월 24~25일 '나는 절로'
직지사 편 9월 24일까지 접수

날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나는 절로'가 10월에는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10월 24~25일 이틀에 걸쳐 '나는 절로, 직지사'를 진행한다.

직지사는 경북을 대표하는 천년고찰로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에 집중해 온 도량이다. 특히 세계적인 가수 BTS RM이 찾아 몸과 마음을 쉬고 간 곳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나는 절로, 직지사'는 황악산과 직지사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직지사 앞 사명대사공원에서 다양한 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사명대사공원은 인기프로그램 '나는 솔로' 촬영 장소이기도 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2030 미혼남녀는 종교와 관계없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 공지사항 구글폼을 통해 9월 17~24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역대 최다 신청으로 관심을 모았던 '나는 절로, 신흥사'는 총 12쌍 중 6커플 성사로 마무리됐다. 강원관광재단과의 협업으로 화제를 모은 '나는 절로, 신흥사'는 속초 바다를 배경으로 한 대형 카페에서의 1:1 로테이션 차담, 속초 명소인 관광수산시장 탐방 데이트는 물론 천년고찰 신흥사 참배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감성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청년이 만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02-6334-2217

임은호 기자